

한국 고대 귀걸이 감정을 위한 착안점

- 제작지와 연대를 중심으로 -

이 한상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조교수

Appraisal of the Period and the Place of Production for Earrings in the Ancient Society of Korea

Han-Sang L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Korea History & Culture, Daejeon University
(2008. 5. 15 토고)

ABSTRACT

People in the Ancient Society of Korea liked golden earrings. The Royal Family or the nobility wanted to make more splendidous golden earrings in order to display their high-ranking positions. However, appearances or production methods of golden earrings differ a little by countries, for example, *Goguryeo*, *Silla*, *Baekje*, *Gaya*, etc. Therefore, by closely examining articles discovered from tombs, we can know which country they were from. In particular, earrings of *Goguryeo* and *Silla* are similar to each other while those of *Baekje* and *Gaya* are similar. This would be closely related with politi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shape of golden earrings in the middle of the 5th century A.D. is relatively simple. However,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5th century, golden earrings in the Ancient Society of Korea changed in the direction of long length or significantly splendidous surface decoration. Accordingly, we can estimate the period of production by analyzing golden earrings discovered from a tomb. In addition, the above trend was common all the earrings in the Ancient Society of Korea, which implies that each nation closely exchanged reciprocally at that time.

Key words: golden earrings(금 귀걸이), ancient society(고대사회), appraisal(감정), period of production(제작시기), place of production(제작지)

I. 서론

귀걸이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주요한 장신구로 기능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귀걸이가 크게 유행한 것은 고대사회의 일이다. 그 시대의 귀걸이는 대부분 금으로 만들었고 다양한 형식의 수식을 매단 점이 특징이다. 우리가 박물관 전시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걸이의 대다수는 서기 5-6세기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러한 귀걸이는 화려함에 더하여 세련미 넘치는 디자인, 그리고 정교한 세공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고대사회 최고의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 고대사회 각국의 귀걸이가 어떠한 특징을 지녔는지 주목해보려 한다. 이는 곧 각국 귀걸이의 양식적인 특징을 밝히는 작업으로 연결되어 각국 문화의 특색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더하여 출토지가 분명하지 않은 귀걸이의 제작지를 판단하는데 기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귀걸이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면 귀걸이와 함께 출토된 유물의 시간적 위치를 해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고대사회를 구성하였던 여러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교류되었고 또 어떻게 융합되어 나갔는지를 이해하는데 유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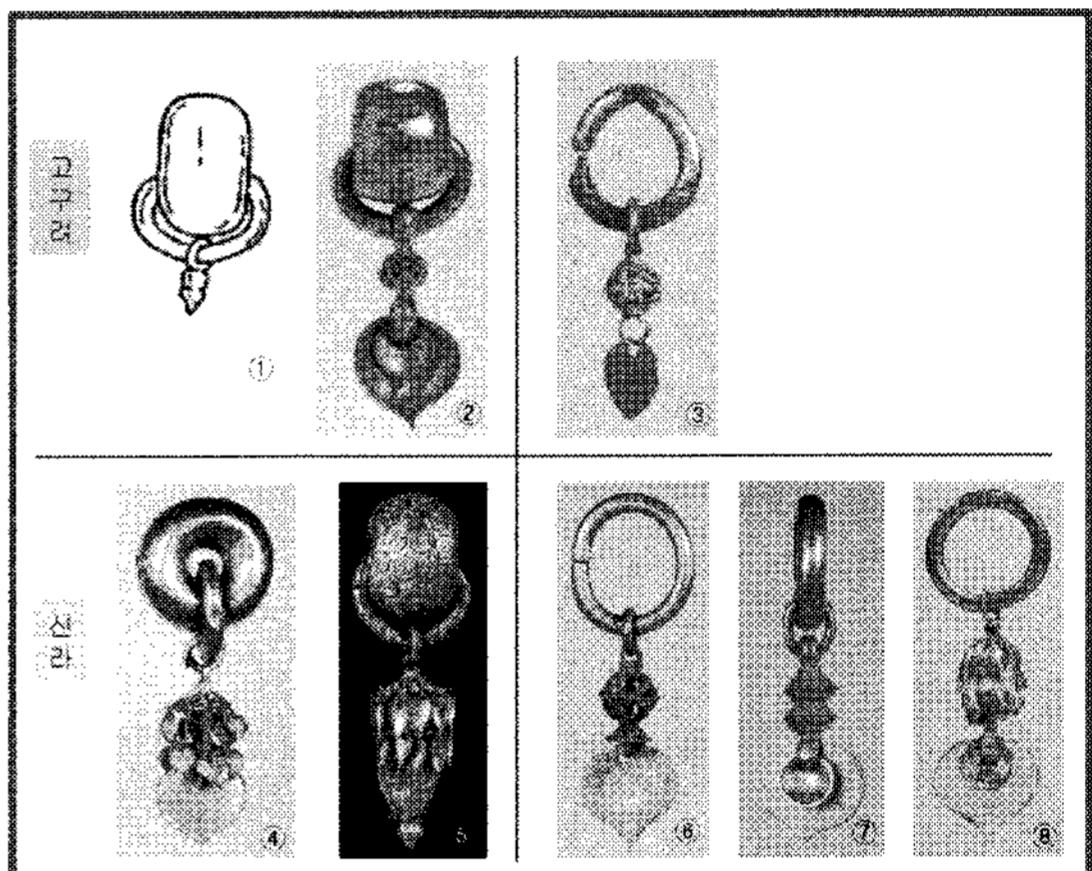
II. 고구려의 귀걸이

1. 고구려 귀걸이의 특색

그간 출토된 고구려 귀걸이는 약 40여점을 헤아린다. 주환의 굵기에 따라 태환이식(그림 1-①②)과 세환이식(그림 1-③)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태환이식은 고구려적인 특색이 현저하다. 고구려 귀걸이의 기본형은 主環-遊環-中間飾-垂下飾을 갖춘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 태환이식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고구려나 신라를 제외하면 매우 드문 편이다. 특히 小環連接球體와 心葉形 혹은 錘形의 수하식을 갖춘 것은 고구려적인 귀걸이라 부를 만하다.¹⁾

세계의 각 문화권에서 종종 발견되는 太環은 중간

부분이 넓고 양 끝으로 가면서 급격히 좁아지는데 비하여 고구려의 경우는 태환의 너비가 전체적으로 균일한 편이다.〈그림 1-②〉 즉, 너비가 균일한 소판 2매를 뺨으로 접합하여 속이 빈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신라의 귀걸이에도 그대로 전해진다. 다만 신라의 태환이식 가운데는 태환을 구성하는 금판의 수량이 보다 많거나 속이 빈 파이프 상의 태환 양끝을 금판으로 막은 것이 있어 다소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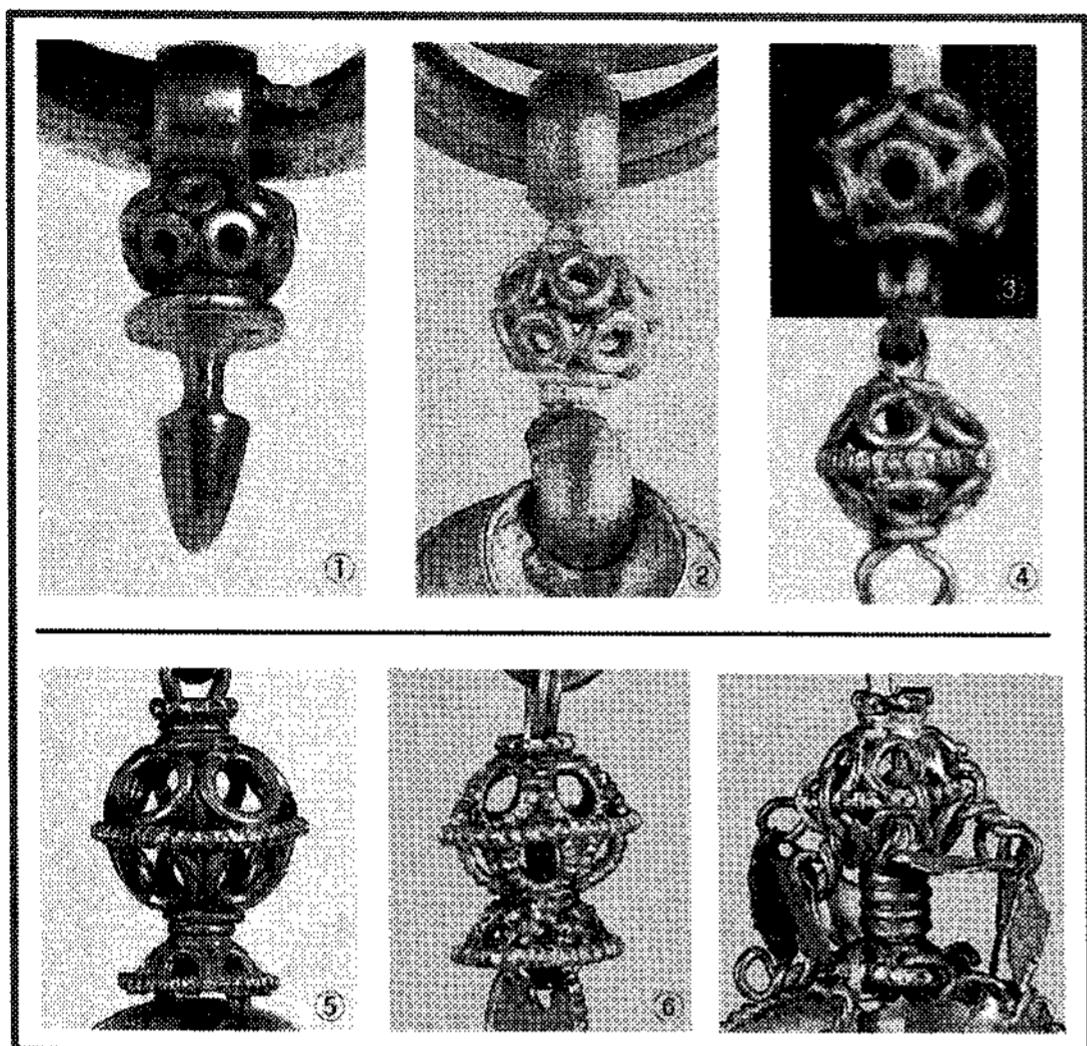


①황남대총 북분, ②회죽리, ③전 황해도, ④인왕동20호분,
⑤금조총, ⑥황남대총 남분, ⑦보문리부부총 적석총,
⑧황남리15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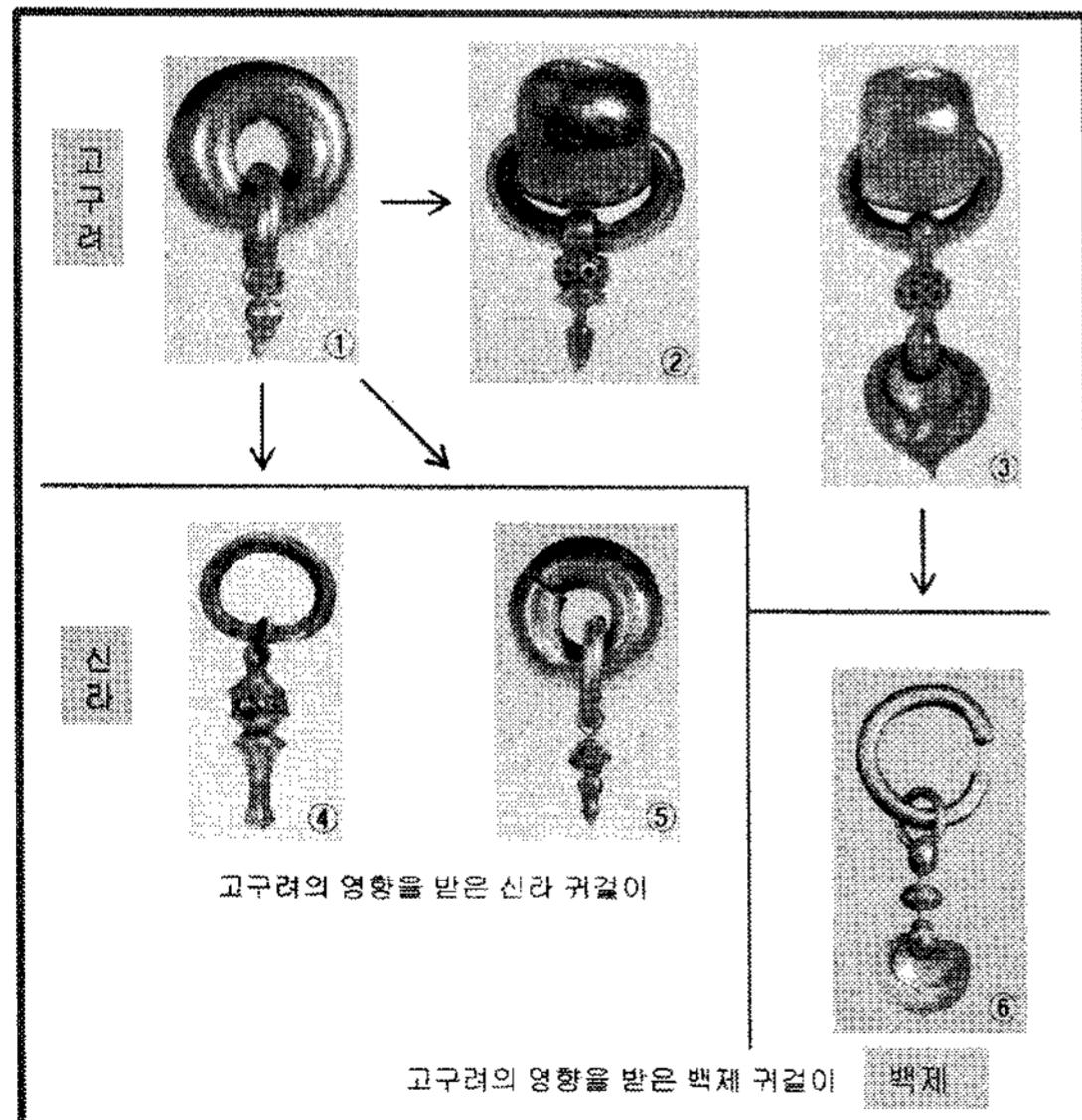
〈그림 1〉 고구려와 신라의 대표 귀걸이

고구려 귀걸이의 또 다른 특징은 중간식과 수하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귀걸이도 신라나 백제, 가야 귀걸이와 마찬가지로 주환-유환-중간식-수하식을 갖춘 것도 있지만 집안 마선구1호분²⁾이나 청원 상봉리 출토 태환이식³⁾처럼 연결금구-중간식-수하식을 뺨으로 접합하여 일체형으로 만든 것이 여러 점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중간식은 속이 빈 구체 혹은 작은 고리 여러 개를 뺨으로 접합하여 만든 구체이며, 수하식은 저울추 모양으로 아래쪽이 뾰족하다.⁴⁾ 〈그림 2-①〉 귀걸이의 부품으로 小環을 연접하여 만든 球體가 자주 활용된다. 그런데 각 나라별로 구체를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며 고구려의 경우 두 종류가 있다. 상하의 소환을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 것〈그림 2-①②③〉과 대칭되게 부착한 것〈그림 2-

④)이 있는데 전자가 주류를 이룬다.



①상봉리, ②회죽리, ③태성리, ④전 황해도,
⑤황남대총 남분, ⑥황오리 14호분2곽, ⑦전 경주
<그림 2> 고구려(상)와 신라 귀걸이(하)의 중간식 비교



①황남대총 북분, ②상봉리, ③회죽리, ④탑리고분2곽,
⑤전 경주, ⑥능산리32호분

<그림 3> 고구려 귀걸이의 변화와 신라, 백제로의 영향

이러한 특징을 지닌 고구려의 귀걸이는 주변국 귀걸이에 영향을 주었다. 신라 귀걸이 가운데 초현기의

자료는 고구려의 귀걸이와 유사한 면모가 많이 확인된다. 주로 소환연접구체를 중간식으로 끼워 넣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의성 탑리2곽5)<그림 3-④>과 전 경주 출토품6)<그림 3-⑤>처럼 추형 수하식을 갖춘 것도 고구려 귀걸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부여 능산리32호분 귀걸이<그림 3-⑥>를 비롯한 사비시기 백제의 귀걸이는 진천 회죽리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연결금구-중간식(공구체)-연결금구를 땜으로 접합하여 일체형으로 만들었다. 이 또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백제에서 제작한 물품으로 추정된다.

2. 연대의 추정

고구려 귀걸이 가운데 초기형은 집안 마선구1호분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이 귀걸이는 크기가 작은 편이고 중간식과 수하식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이보다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귀걸이로는 서울 능동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예가 있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것의 외형이 간소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화려해지는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의 귀걸이는 고구려 멸망 후에 발해의 귀걸이로 그 기본 디자인이 이어진다.

고구려 귀걸이 가운데 공반유물이 알려진 예로 집안 마선구1호분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이 무덤의 연대에 대하여 4세기 후반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5세기 초반으로 내려 보는 견해도 있다. 이 무덤 출토품 태환이식은 태환 아래에 조롱박 모양의 장식이 부착되어 있으며 경주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7)<그림 3-①>에 비하여 크기가 작아 고식이라 추정하고 있다.

그 외에 청원 상봉리와 남성골8), 진천 회죽리 귀걸이9)를 통하여 대략적인 연대의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청원과 진천은 오랫동안 백제의 영역이었는데 근래 이곳에서 고구려 귀걸이를 비롯한 고구려 문물이 세트로 확인되었다. 이곳에 고구려 문물이 이입되는 계기에 대하여, 서기 475년 백제 수도 한성이 함락되면서 이 지역이 일시적으로 고구려의 영향 아래에 편입되는 사실을 주목하여 5세기 후반을 상한연대로 보고 있다. 평양이나 집안지역 출토품과 비교해 보면, 청원 상봉리의 귀걸이는 평양 안학궁 출토품10)과 매우 유사하다. 연결금구와 중간식·수하식은 땜

으로 접합되어 있으며, 중간식은 소환 여러 개를 뼈 으로 연접하여 만든 구체이고 수하식은 추형이다. 진 천 회죽리의 귀걸이는 평양 대성산성¹¹⁾, 집안 마선구 역 출토품¹²⁾과 동형이다. 중간식은 소환을 접합하여 만든 구체이고 심엽형의 수하식 3매를 매달았다. 청 원 남성골유적의 귀걸이는 구조상 전 2점의 귀걸이 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

이처럼 중원지역 출토 고구려 귀걸이의 상한연대는 서기 475년으로 볼 수 있지만 하한연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¹³⁾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한강유 역을 회복하는 것은 서기 551년이지만, 『삼국사기』 등의 사서에 의하면 백제는 무령왕 재위연간에 고구 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한강유역에 진출하는 기 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III. 신라의 귀걸이

1. 신라 귀걸이의 특색

초현기의 신라 귀걸이는 고구려의 귀걸이를 모델로 제작되었다. 주환의 금기에 따라 태환이식과 세환 이식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태환이식은 종류가 단 순한 편임에 비하여 세환이식은 여러 종류의 귀걸이 가 공존하는 모습이 살펴진다.¹⁴⁾

태환은 도넛모양인데 속이 비어 있다. 태환의 표 면에는 접합선이 관찰된다. 즉, 단면 반원형의 금판 2매를 뼈 으로 접합하여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황 남대총 북분 단계에 이르면 태환이 커지면서 태환의 제작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숫자도 늘어난다. 유물을 살펴보면¹⁵⁾ 태환의 맨 바깥 쪽 측면의 중앙에 세로로 접합선이 하나, 다시 환의 안쪽에 두 개의 선이 살펴지는 경우가 있다. 주로 왕족묘로 추정되는 대형 무덤 출토품이 해당된다. 이 경우는 단면이 반원형으 로 흰 금판 2매와 단면이 직선적인 금판 1매를 뼈 으로 접합하여 속 빈 고리를 만든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태환이식은 태환의 양 끝에 동그란 금판을 붙여 막았다. 그리고 열을 가할 때 태환접합부가 터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 가스가 분출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의 태환은 신라에 유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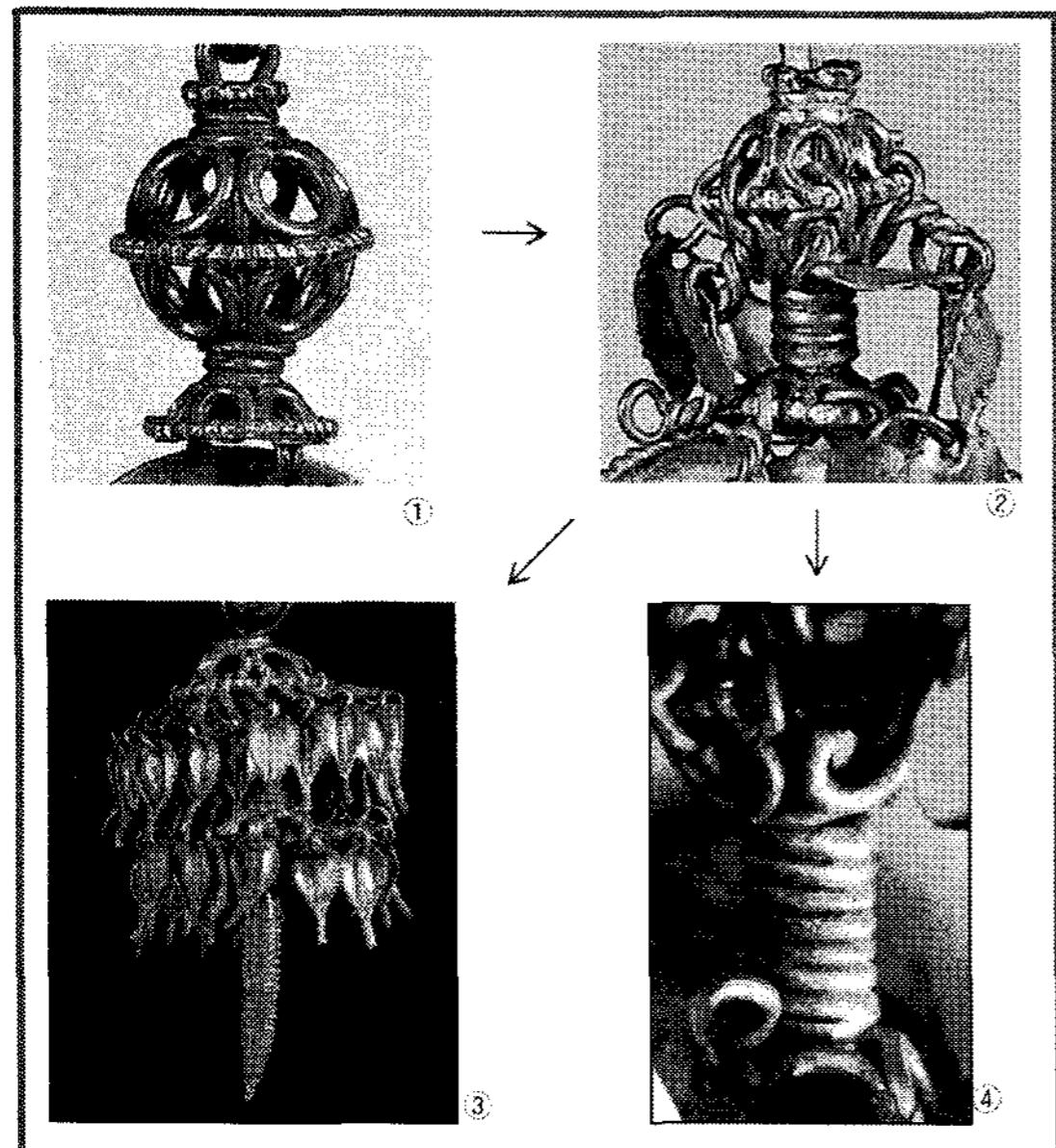
므로 신라적인 특색 가운데 하나로 지적해 두고자 한다.¹⁶⁾

태환이식과 세환이식을 막론하고 主環 아래에 遊環을 거는 것이 보통이다. 귀걸이가 길어보이도록 함과 동시에 중간·수하식의 유동성을 좋게 하는 기능도 고려한 부품인 것 같다. 유환은 구리에 금판을 덧 씌운 것이 많고 일부 순금제품도 확인된다. 그런데 신라 귀걸이의 절정기로 평가되는 6세기 전반의 태환이식을 보면, 유환은 속이 비어 있는 것도 있고 아래로 늘어뜨려지는 중간부분이 배부른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는 그리스, 로마 등 황금문화가 만개한 문화권의 귀걸이에서 간간이 출토되는 태환과 유사하다. 귀걸이의 모든 요소를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려는 의도에서 고안된 장식일 것이다.

신라 태환이식의 중간식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 맨 위쪽에는 소환연접구체 1개를, 그 아래에는 구체의 윗부분만 제작한 반구체를 연접한 것이다.<그림 2-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려의 귀걸이는 구체 1개를 끼워 중간식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⁷⁾ 소환연접구체를 만드는 기법 또한 차이가 있다. 신라의 경우 대부분 12개의 소환을 접합하여 만들었는데 장식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구체의 상하에 동일한 크기의 소환을 1-2개 더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하의 소환이 대칭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상하 小環列의 중간에 刻目帶를 넣는다. 중간식의 기본구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혹은 귀걸이의 격에 따라 약간의 다양성을 지닌다. 즉, 구체와 반구체 사이에 소환을 겹쳐 쌓거나 스프링처럼 감아서 만든 장식을 끼워 넣기도 한다.<그림 2-⑦> 고식의 귀걸이는 구체와 반구체가 바로 연결되거나 2개 내외의 소환을 끼워 넣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귀걸이가 길어지는 경향과 더불어 구체 사이의 장식도 길어진다. 가장 긴 경우 금사를 7-8회 이상 감은 것도 있다.<그림 4-④>

이러한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영락이다. 고 대사회 귀걸이 가운데 유독 영락이 많이 달린 것은 신라의 태환이식이다.<그림 4-③> 황남대총 북분 단계 이후 본격적으로 장식되며 차츰 그 수량이 많아진다. 고구려 귀걸이의 경우 영락이 부착된 예가 알

려져 있지 않고 백제의 경우는 무령왕비 귀걸이 정도가 손꼽힌다. 가야 역시 6세기 초의 귀걸이에 몇 예가 있지만 영락이 장식된 예는 소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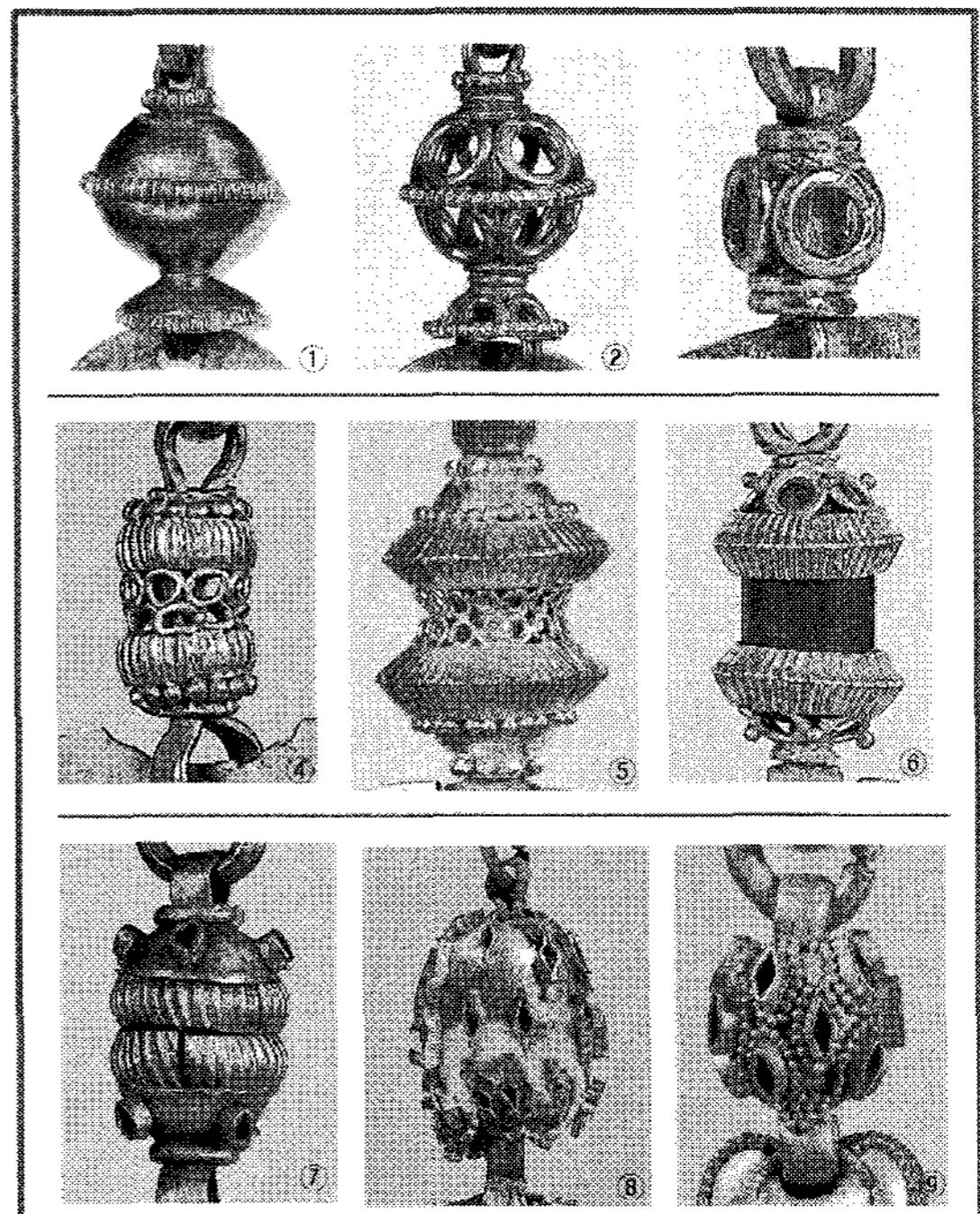


①황남대총 남분, ②전 경주, ③보문리부부총 석실분,
④황남리82호분 서총

〈그림 4〉 신라 귀걸이의 변화양상

신라의 세환이식은 태환이식에 비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렇지만 초기에 유행한 형식은 중간식이 소환연접구체나 입방체(그림 5-③)로 구성되어 있어 태환이식의 중간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환이식이 보다 다양해지는 것은 5세기 후반 이후이다. 이 무렵이 되면 매우 작은 소환과 각목대 등을 조합하여 만든 원통형 장식(그림 5-④⑤)이 중간식으로 이용되며 이후 6세기까지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제작된다. 이러한 유형의 귀걸이가 신라 세환이식 가운데 가장 유행한 것이다. 그 외에 중간식 없이 사슬로 수하식을 매다는 간소한 형식도 등장한다. 신라 세환이식의 전성기는 역시 6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는데, 계란모양의 空球體 표면에 좁은 금판과 금알갱이를 붙여 무늬를 표현한 예도 있고(그림 5-⑧⑨), 펼친그림이 十字모양을 이루는 장식을 상하로 대칭되게 끼워 만든 귀걸이(그림 11-④)도 유행한다.

원통체의 경우 상하로 여러 줄의 작은 고리를 연접시킨 예(그림 6-④)도 있는데 대체로 지방의 무덤에서 출토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판을 둥글게 말아 끼우기도 하고 경주 노서리138호분 귀걸이(그림 5-⑥)처럼 호박을 끼워 넣기도 하였으며 나무 등 유기물로 장식한 예(그림 5-⑦)도 있다. 이처럼 원통형 중간식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에도 유례가 있다.¹⁸⁾ 일본 열도에서는 원통형 중간식을 갖춘 귀걸이가 郡川西車塚古墳에서 출토되었는데 은제품이므로 일본열도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⁹⁾



①②황남대총 남분, ③황남리파괴고분4pc,
④황오리16호분4pc, ⑤보문리부부총 적석총,
⑥노서리138호분, ⑦전 경주, ⑧황남리151호분,
⑨황오리100번지2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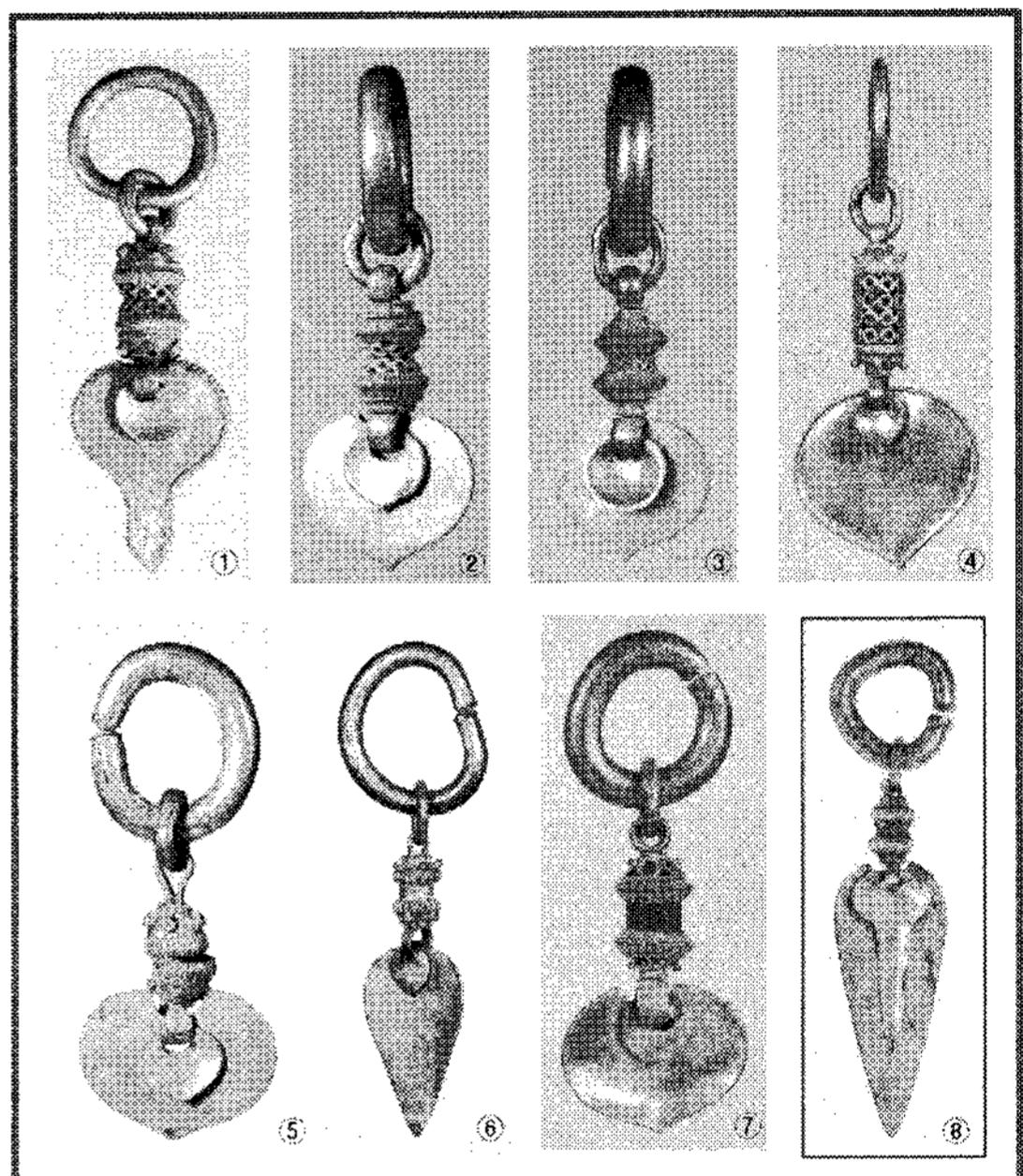
〈그림 5〉 신라 세환이식의 중간식
(상: 5세기, 중하: 6세기)

고대사회의 귀걸이는 주환과 중간식, 수하식을 각기 만들어 이를 조합한 점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반드시 연결금구가 필요한데 金絲나 가늘고 좁은 금판을 활용하였다. 고구려 귀걸이의 경우 금판이 이용되거나 혹은 연결금구 없이 유환과 중간식, 수하식을

땜으로 접합하여 연결하였음에 비하여 신라의 귀걸이는 대부분 연결금구가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금사가, 5세기 후반 이후 금판이 주로 활용된다. 금판의 너비는 중간식을 구성하는 소환연접구체의 소환 직경보다 좁다. 이것은 고구려 귀걸이와 다른 점이다. 신라의 소환연접구체는 정원형을 띠는 예가 많음에 비하여 고구려의 경우 횡타원형을 띠는 예도 있다. 금판으로 만든 연결금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금판 전체의 너비가 균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쪽의 너비가 보다 넓은 것이다. 전자가 시기적으로 선행한다. 후자와 같은 연결금구가 개발된 것 또한 귀걸이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한 고려로 보인다. 연결금구는 기본적으로 각 부분을 연결하는 용도를 가지고 있고 각 부품의 속으로 끼워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유환에 거는 부분과 수하식을 매다는 곳에 한정된다. 이처럼 드러나는 부분을 넓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위와 아래 두 부분 모두를 넓게 만들면 중간식 속으로 끼워 넣을 수 없다. 그 때문에 수하식을 매다는 아래쪽만 넓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만 천마총²⁰⁾이나 데이비드총(그림 6-②)²¹⁾, 보문리 부부총(그림 6-③)²²⁾의 세활이식은 연결금구의 위쪽이 좁게 드러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만든 금판으로 표면을 감싸 장식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백제 무령왕의 귀걸이(그림 11-①)²³⁾에서도 확인된다. 태활이식의 경우 영락이 아래쪽으로 드리워져 수하식을 매다는 부분의 연결금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을 좁게 만들고 유환에 거는 부분을 넓게 만들기도 한다.

고대사회의 귀걸이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하식은 심엽형 장식이다. 그 가운데 신라적이라고 지적 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세로로 장식을 부가한 것이다.(그림 8-①) 가장 고식은 황남대총 남분 귀걸이²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절반을 접었다가 펴서 중간 부분을 돌출시킨 것이다. 대구 달서51호분 2곽 귀걸이의 경우 끌을 이용하여 세로로 볼록한 장식을 두드려 장식하였다.²⁵⁾ 이후 이에 대신하여 刻目帶를 부착한 예가 많아지며 6세기 중엽에 가까워지면서는 금 알갱이를 붙이거나 여러 줄의 각목대를 붙여 화려하게 꾸민 귀걸이도 만들어진다.

6세기대 자료 가운데는 황오리52호분²⁶⁾이나 창녕 계성II지구 1호묘²⁷⁾, 그리고 양산 금조총 태활이식²⁸⁾처럼 외형이 펜촉모양을 띠는 것도 있다.(그림 7-④) 이러한 수하식은 신라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며 가장



①미추왕릉지구, ②데이비드총, ③보문리부부총 적석총,
④비산동37호분2실, ⑤⑥전 경주, ⑦노서리138호분,
⑧동남리(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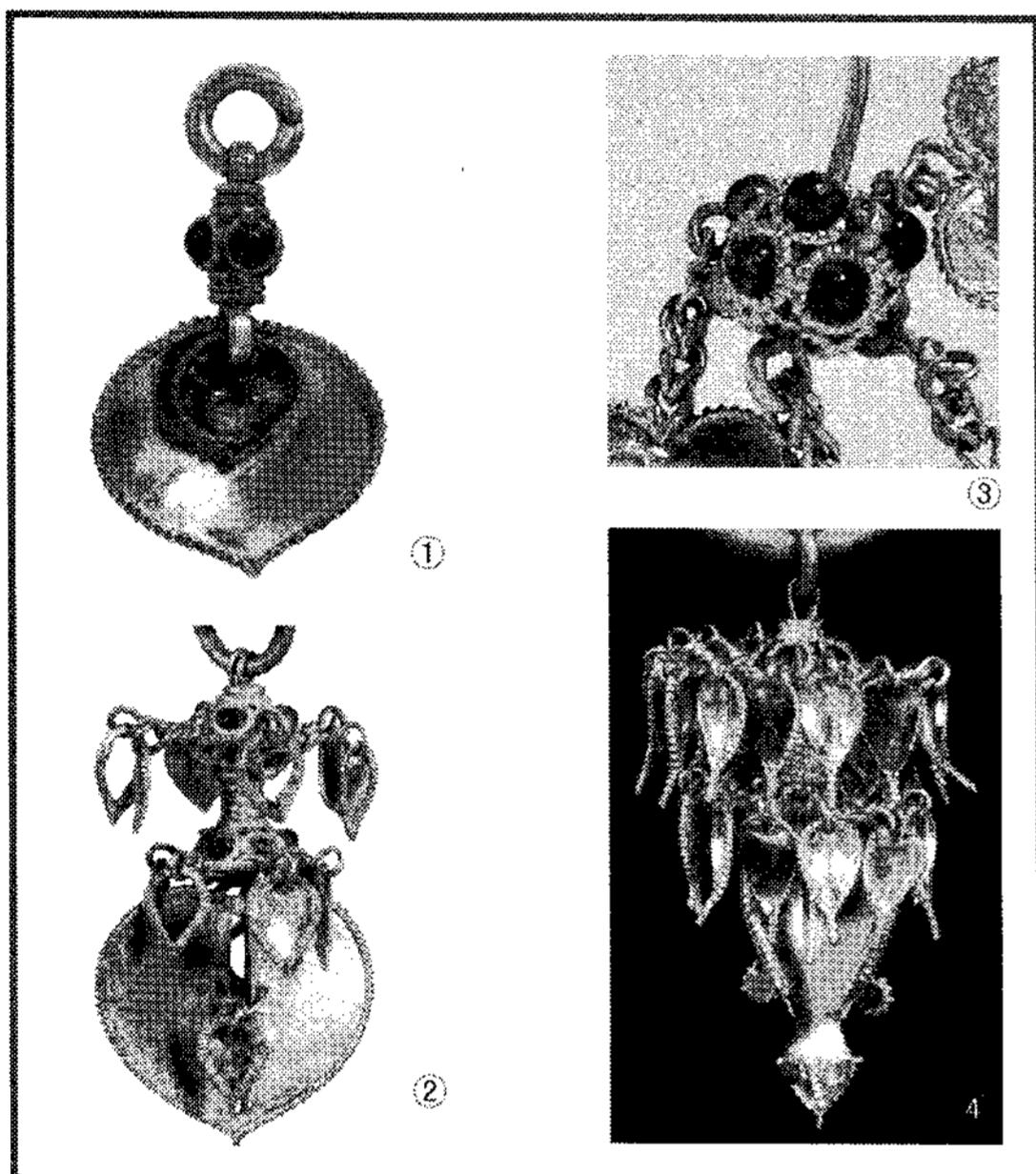
〈그림 6〉 신라에서 가장 유행한 형식의 세활이식

이른 시기의 자료는 황남대총 북분에서 보인다. 다만 북분 출토품 등 5세기 자료는 금판을 펜촉모양으로 오린 다음 중간부분을 세로로 조금 접어 완성 한 것임에 비하여 6세기 자료는 2매의 펜촉모양 금판을 접합하여 中空의 장식을 만든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라 귀걸이 가운데는 황금빛 금색에 청색의 유리가 덧붙여져 화려함을 배가시킨 예가 있다.(그림 7) 금령총²⁹⁾이나 금관총³⁰⁾, 서봉총³¹⁾, 그리고 창녕 계성II지구 1호묘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중간식과 수하식에 유리옥을 끼워 넣거나 영락 표면에 칠보기법으로 유리를 녹여 붙여 장식한 것이 있다. 그리스, 로마, 흥노, 선비, 한족의 황금장식에는 터키석이 주로 감입되어 황금색과 대조를 짜하였음에 비하여 신라

의 귀걸이에는 유리가 장식된 점이 특색이다.

지금까지 출토된 신라의 귀걸이는 대부분 경주의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녕이나 대구 출토품 가운데 일부는 지방의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에서 제작된 귀걸이 가운데는 창녕 교동12호분 출토품이 대표적인 바, 그 특징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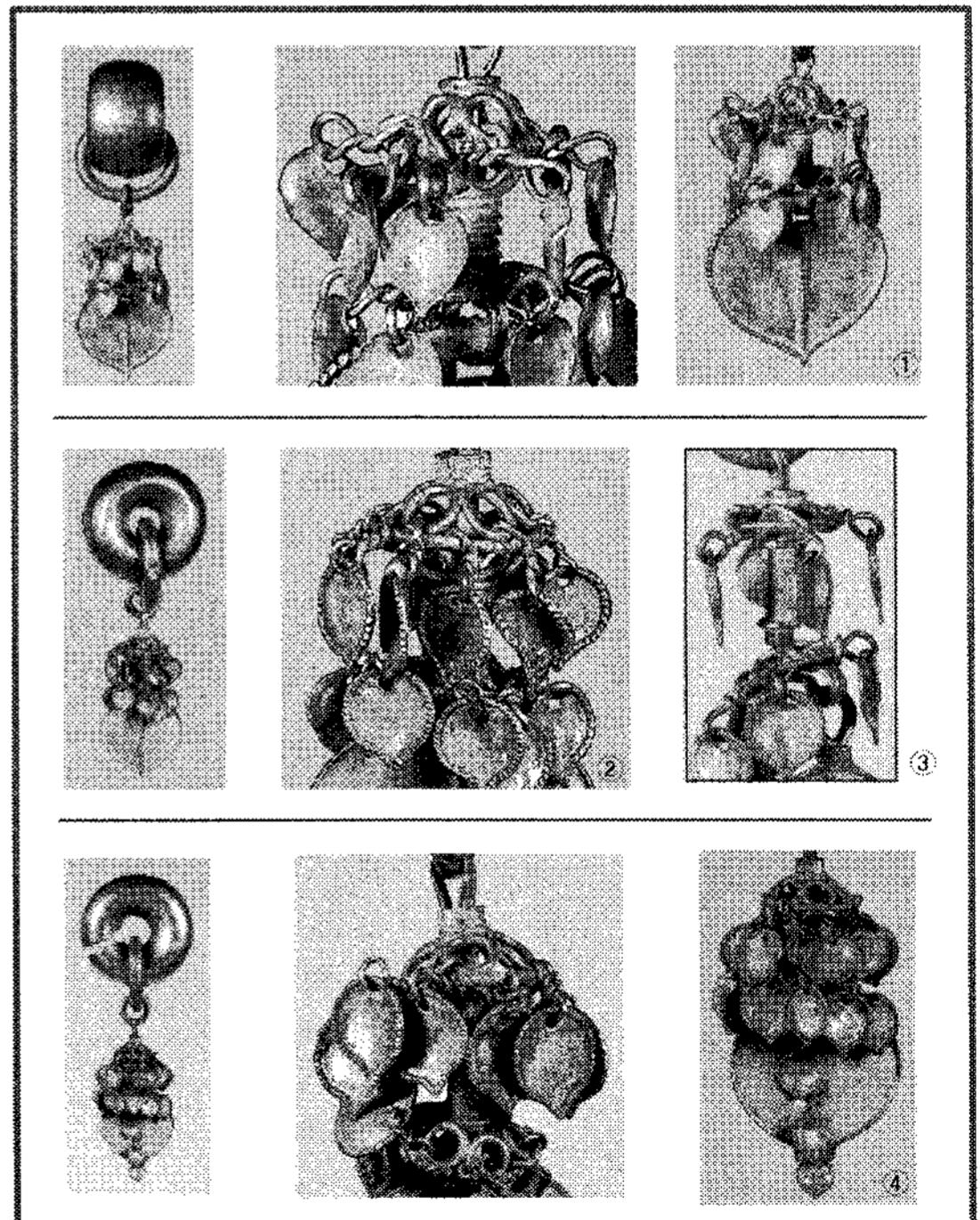


①금령총, ②서봉총, ③금관총, ④계성Ⅱ지구1호분

<그림 7> 신라 귀걸이에 장식된 유리

경주 황오리34호분 출토 태환이식<그림 8-①>은 각 부품의 형태나 제작기법, 색조로 보아 왕경 공방에서 제작한 귀걸이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창녕 교동12호분 태환이식<그림 8-④>은 기본적인 부품의 구성이 황오리34호분 귀걸이와 유사하지만 각 부품의 세부적인 형태와 제작기법, 그리고 색조는 꽤나 다르다. 그런데 수백 점의 신라 태환이식 가운데 이러한 예는 이 귀걸이와 경주 인왕동20호분 출토품<그림 8-②>밖에 없다. 이 2점의 귀걸이는 우선 중간식의 형태가 특이하다. 소환을 연접하여 만든 구체가 扁球形이며 구체 상부와 구체·반구체 사이의 장식은 금판을 둥글게 말아 만든 원통형이다. 표면에는 斜格子紋이 새겨져 있다. 이와 유사한 중간식은 합천

옥전M6호분 귀걸이<그림 8-③>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옥전 귀걸이의 영락 제작기법 또한 서로 酷似하다. 창녕의 경우 교동과 송현동에서 출토되는 帶金具나 장식마구가 경주를 비롯한 여타지역 출토품과 달라 이를 ‘昌寧的인 金工文化’의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 교동12호분의 귀걸이를 창녕산으로 볼 경우 그와 유사한 인왕동20호분 출토품으로 알려진 귀걸이 역시 창녕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싶다. 다만 옥전 M6호분 귀걸이는 창녕산일 가능성과 창녕의 영향을 받아 합천에서 제작한 것일 가능성을 함께 고려에 넣어두고자 한다. 그런데 왜 창녕에서 제작된 귀걸이가 경주 인왕동20호분에 묻힌 것일까? 이 귀걸이가 확실히 인왕동에서 출토된 것이라면 창녕지역 공방에서 만든 금공품도 중앙에 공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³²⁾



①황오리34호분, ②인왕동20호분, ③옥전M6호분,
④교동12호분

<그림 8> 신라 왕경공방(상)과 지방공방 제작
귀걸이(중,하)의 비교

2. 연대의 추정

신라의 귀걸이도 고구려의 귀걸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화려해진다. 전체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표면에 금 알갱이를 붙이는 등 꾸미는 장식이 현저히 많아진다. 그에 따라 무게 역시 무거워진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성은 귀걸이뿐만 아니라 금관 등의 장신구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변화의 세부적인 양상을 단계화시키면 귀걸이 출토 고분의 상대서열을 확정해볼 수 있다.

태환이식은 기본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양상은 비교적 명확하다. 그 변화의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환이 커진다. 황남대총 남분 귀걸이와 보문리부부총 석실묘 귀걸이 사이에는 크기에서 현격한 차이가 보이는데 소형에서 대형으로 변화한다. 둘째, 연결금구가 변한다. 초기에는 금사를 사용하다가 차츰 금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금판은 좁은 것에서 넓은 것으로 변화한다. 셋째, 중간식의 구조와 길이가 변한다. 중간식을 구성하는 구체와 반구체 사이의 장식이 길어진다. 처음에는 구체와 반구체가 바로 붙어 있지만 차츰 그 사이에 금사를 여러 바퀴 감아 넣어 장식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길이가 길어진다. 넷째, 영락이 장식되는 부위가 넓어진다. 영락이 없는 것에서 중간식에만 있는 것으로, 다시 수하식까지 장식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아울러 영락의 숫자도 늘어난다. 다섯째, 심엽형 수하식의 제작기법이 변화한다. 처음에는 장식 없는 판이 사용되는데, 중간에 打出로 突帶를 표현하는 단계를 거쳐 판 앞뒤에 세로로 돌대를 접착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후기에는 테두리에 刻目帶와 금 알갱이 붙임장식이 추가된다. 태환이식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변화는 세환이식에서도 살펴진다. 초현기의 세환이식은 간소하다. 상하 길이도 짧고 영락장식이 없다. 이에 비하여 6세기 귀걸이는 종류가 다양해지며 금 알갱이를 붙이거나 옥을 끼워 장식하는 예도 생겨난다.

이상의 변화를 고려하면 귀걸이가 출토된 주요 무덤의 상대서열을 다음과 같이 정해볼 수 있다. 월성로 가-13호분→황남리110호분→황남대총 남분→황남대총 북분→금관총·서봉총→금령총·천마총·데이비드총→황남리151호분 석실묘·호우총→황오리52호

분·노서리215번지고분·보문리부부총 적석목곽묘→보문리부부총 석실묘의 순이다.

신라의 무덤 가운데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것은 백제의 무령왕릉처럼 묘지가 출토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호우총이나 서봉총에서 紀年銘을 가진 유물이 출토되기는 하였지만 유물의 제작시점만을 추정할 수 있을 뿐 무덤에 문힌 연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하는 자료이다. 더욱이 전세기간의 설정이란 것이 학자마다 유물마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 때문에 백제 등 주변국 자료와의 교차연대 설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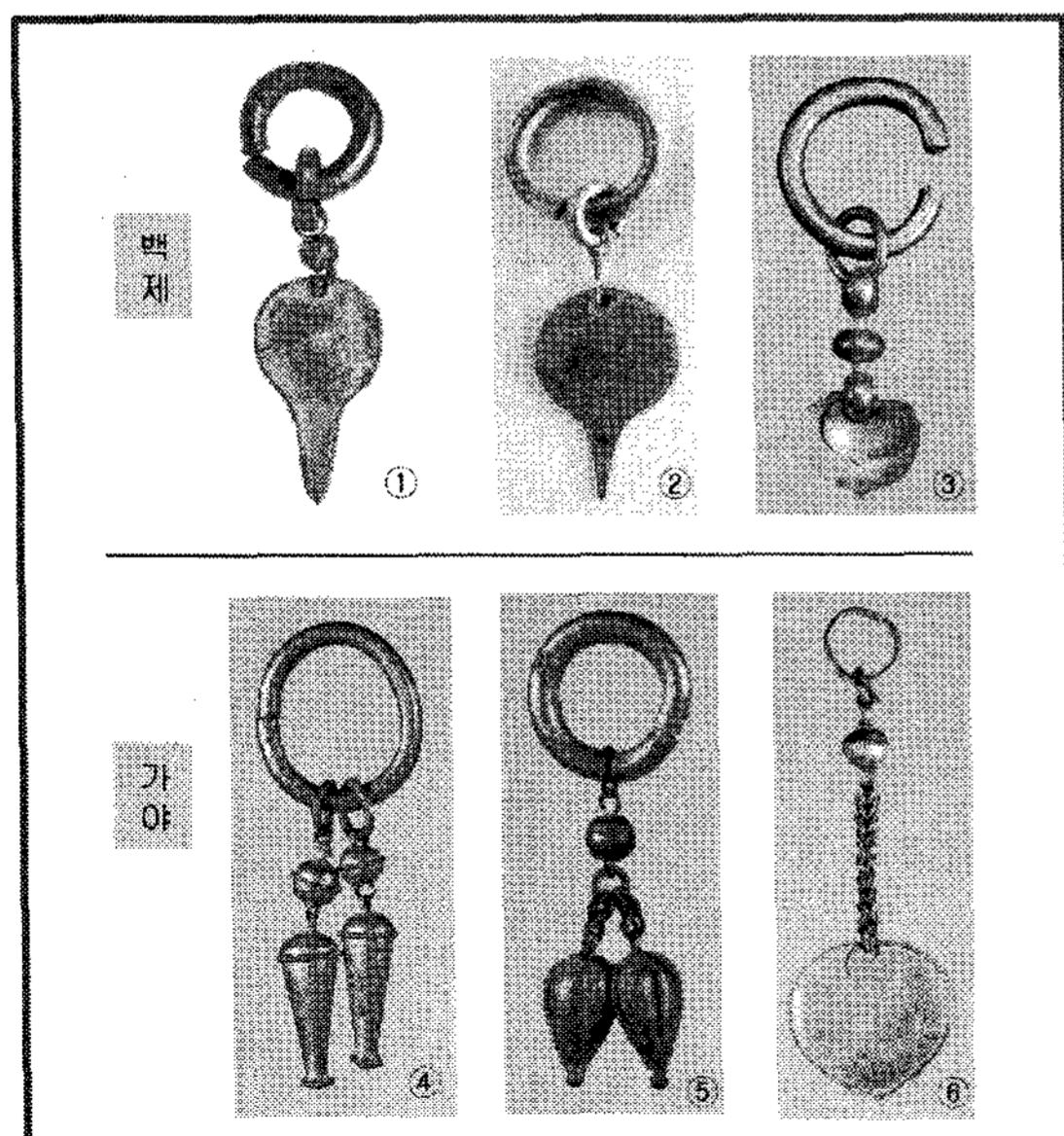
고대사회의 무덤 가운데는 서기523년에 사망하여 525년에 매장된 무령왕의 무덤이 주목된다.³³⁾ 신라 귀걸이 가운데 무령왕의 귀걸이와 유사한 장식을 갖춘 예로는 천마총, 금령총, 데이비드총 출토품이 있다. 이 세 무덤의 연대를 6세기 초로 고정한다면 그보다 고식의 귀걸이를 5세기 후반대로, 신식의 귀걸이를 6세기 중엽에 가까운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이외에 금관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백제 송산리4호분 출토품과 동형이어서 양자를 비교하여 5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³⁴⁾ 그보다 이른 시기의 귀걸이는 각각 변화의 템포를 계산하여 연대를 추정해볼 수 있을 정도이다. 필자는 월성로 가-13호분의 연대는 4세기 후반으로, 황남대총 남분의 연대는 5세기 중엽으로, 황남대총 북분은 5세기 후반에서 이른 단계로 추정하고 있다.³⁵⁾ 천마총보다 늦은 시기의 귀걸이가 출토된 무덤 가운데 대략적인 연대추정이 가능한 자료로 보문리부부총 석실묘가 있다. 이 무덤은 널길이 짧은 횡혈식석실묘인데 신라에서 가장 화려한 태환이식이 출토된 바 있다. 함께 출토된 청동제 팔찌는 서기 567년에 매납된 부여 능사 목탑지 하부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³⁶⁾ 이를 고려한다면 보문리부부총 석실묘의 연대를 6세기 중엽으로 편년할 수 있다. 보문리부부총 석실묘의 연대를 이렇게 볼 경우 그보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무덤의 연대는 6세기 전반의 늦은 단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V. 백제의 귀걸이

1. 백제 귀걸이의 특색

백제의 귀걸이는 고구려만큼이나 출토 수량이 적다. 그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백제적인 귀걸이의 특색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다행히 근래 원주 법천리, 천안 용원리, 청원 주성리, 공주 수촌리, 서산 부장리 등 한성시기 유적에서 귀걸이가 연이어 출토됨에 따라 백제 귀걸이의 특색이 비로소 해명되기에 이르렀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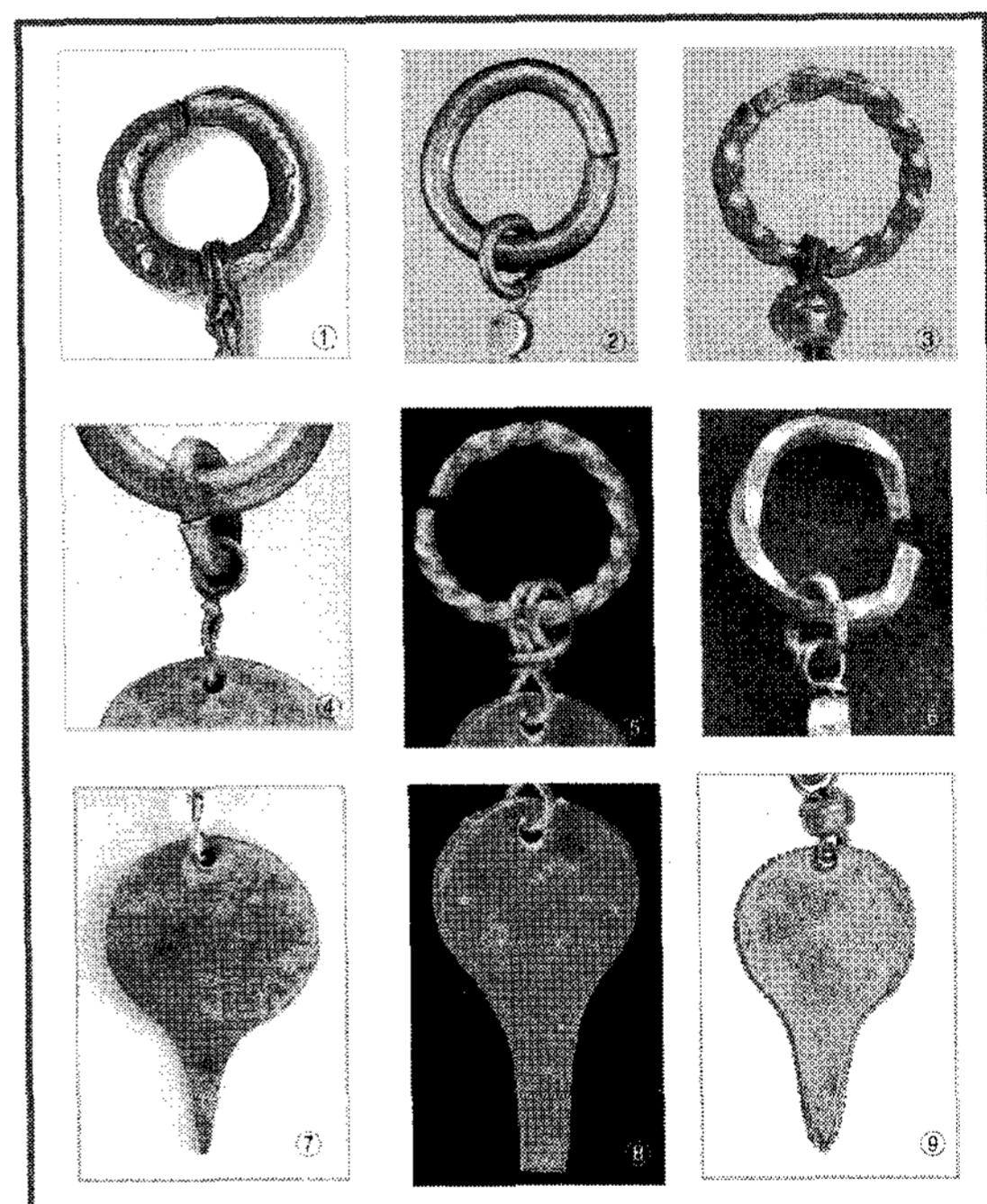
주환은 모두 세환이며 아직 태환은 알려져 있지 않다.<그림 9-①②③> 백제의 세환은 속이 찬 金棒을 휘어 만든 것이 많지만 수촌리4호분³⁸⁾이나 용원리37호분³⁹⁾, 부장리6-6호분 귀걸이⁴⁰⁾처럼 단면 사각형의 금봉을 비틀어 꼬아 螺旋形으로 만든 것도 존재한다.<그림 10-③⑤⑥> 이러한 형태의 주환은 진주 중안동 귀걸이<그림 13-④>에서도 확인되나 백제자료가 선행하므로 백제적인 기법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①용원리129호분, ②수촌리1호분, ③능산리32호분,
④옥전M2호분, ⑤전 거창, ⑥백천리1호분 3과

<그림 9> 백제와 가야의 대표 귀걸이

한성시기 귀걸이의 중간식으로는 속이 비어 있는 구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구체의 크기가 매우 작다. 空球體 중간식을 갖춘 귀걸이로는 용원리129호묘 출토품<그림 9-①>⁴¹⁾이 대표적이다. 그와 함께 圓板狀의 장식 또한 특색이 있다. 용원리9호 석곽묘<그림 10-②>⁴²⁾나 부장리6-6호분 귀걸이의 중간식은 금판을 뼈으로 접합하여 만든 中空의 원판상 장식이다. 청주 신봉동 출토로 전하는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품⁴³⁾은 원판상 炭木의 표면에 금판을 씌운 것인데 동일 유형의 귀걸이다. 이러한 중간식은 대가야의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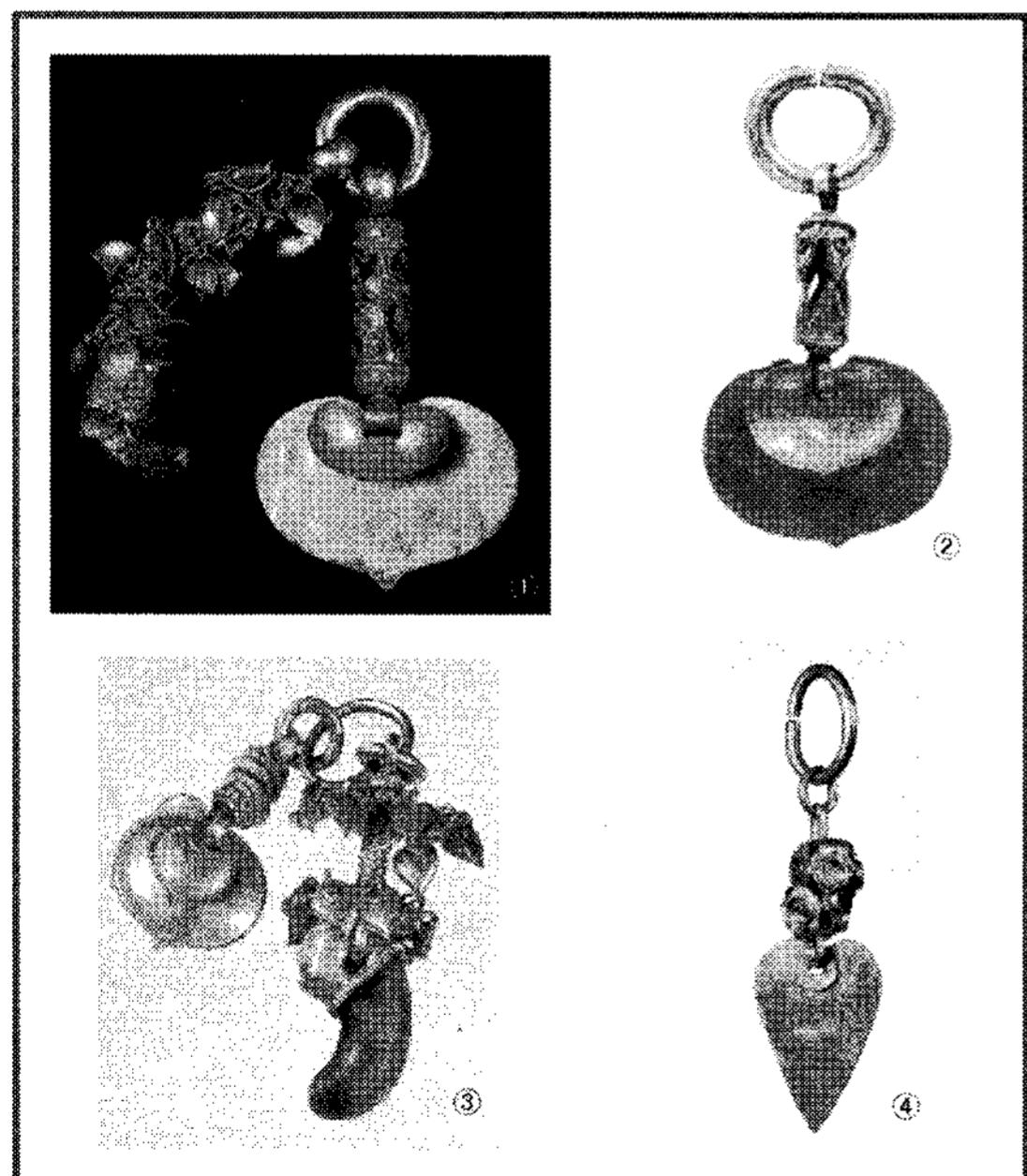
①석촌동, ②용원리9호석곽묘, ③용원리37호분,
④⑦수촌리1호분, ⑤⑧수촌리4호분, ⑥부장리6-6호분,
⑨용원리129호분

<그림 10> 백제 귀걸이의 세부1(한성시기)

기 귀걸이인 합천 옥전23호분 출토품⁴⁴⁾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의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무령왕과 무령왕비 귀걸이의 중간식은 웅진시기 귀걸이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무령왕의 귀걸이⁴⁵⁾는 2개의 원통체를 대칭되게 연결하여 중간식을 구성하였다.<그림 11-①> 원통체는 3개의 날개모양 장식을

오모려 만들었는데 날개모양 장식은 위가 좁고 아래가 둥글다. 이 장식의 가장자리에는 금 알갱이를 1줄로 붙여 장식했고 안에는 좁은 금판을 오려서 둥글게 말아 붙였다. 이러한 구조의 중간식은 경주 황오리34호분⁴⁶⁾, 경주 황남동106-3번지 1호묘⁴⁷⁾, 대구 화원 성산고분<그림 11-④>⁴⁸⁾, 일본 熊本 江田船山古墳 출토 귀걸이<그림 11-②>⁴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 江田船山古墳 출토 귀걸이는 백제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경주와 대구에서 출토된 3쌍은 6세기 전반에 유행한 신라의 세환이식이다. 현재까지의 자료에서 보면 무령왕 귀걸이에 보이는 중간식의 형태는 백제 귀걸이의 흐름 속에서 매우 돌출적인 것이다. 아마도 신라 귀걸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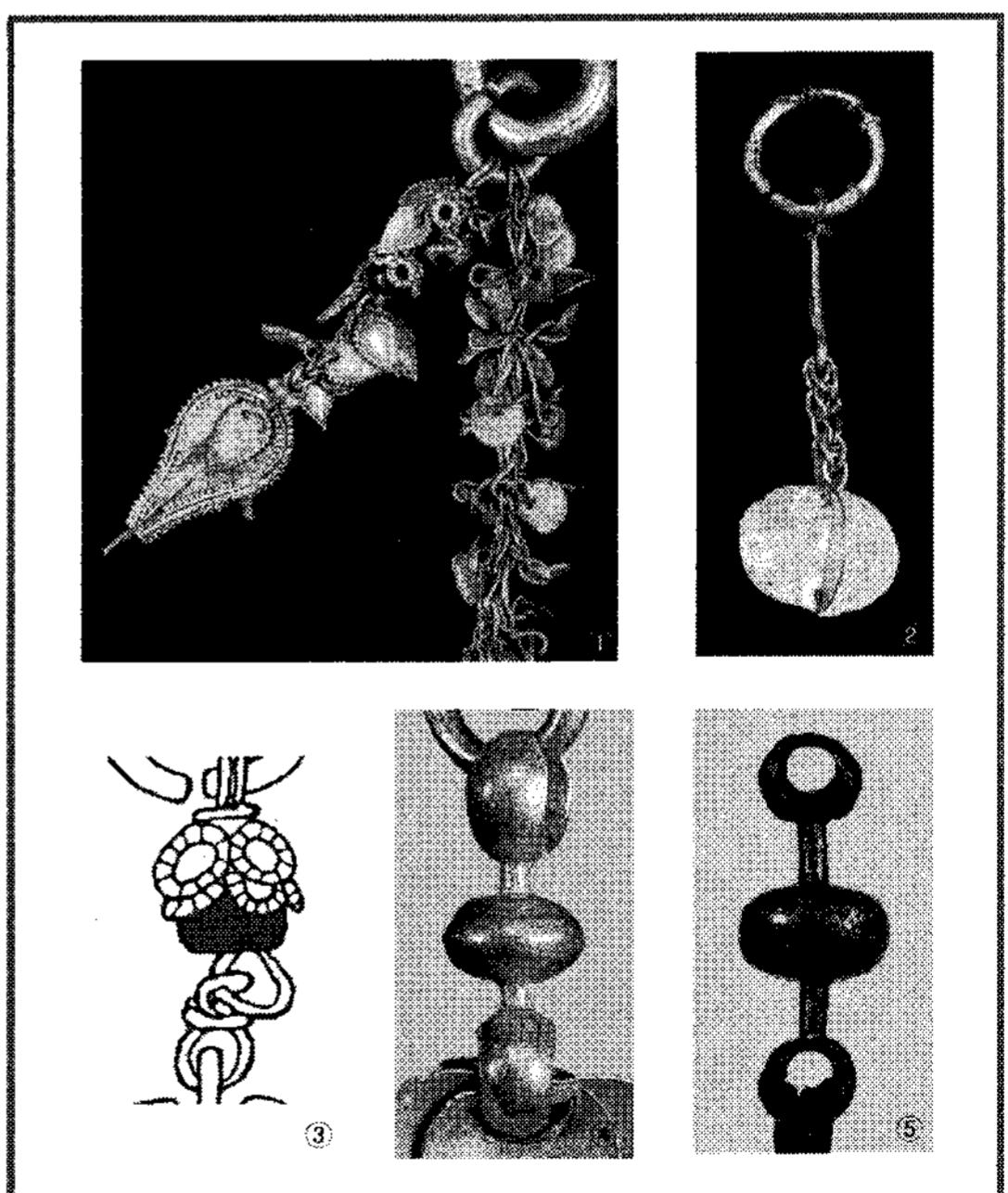
①무령왕, ②江田船山古墳, ③금령총, ④화원 성산고분

<그림 11> 백제 무령왕의 귀걸이와 비교자료

무령왕비 귀걸이의 중간식은 담녹색의 유리구슬에 소환을 연접시켜 만든 半球體를 덧씌운 것이다.<그림 12-①> 이러한 구조의 중간식은 공주 송산리6호분<그림 12-③>⁵⁰⁾과 일본 滋賀 鴨稻荷山古墳 출토품⁵¹⁾에서도 확인된다. 소환을 연접하여 만든 반구체는 신

라와 백제의 귀걸이에서 모두 보이지만 신라의 경우 중간식의 일부 장식으로 쓰이며 반구체의 하면에 刻目帶를 돌려 장식하고 있음에 비하여 무령왕비의 귀걸이에는 하면의 帶가 없다. 특히 반구체 속에 琉璃玉을 끼워 장식한 것은 매우 백제적인 특색이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웅진시기의 중간식은 사비시기 이후 일변한다. 현재까지 출토된 사비시기 귀걸이의 중간식은 모두 공구체이며 일부는 장타원을 띠기도 한다. 능산리32호분<그림 12-④>과 49호분⁵²⁾, 官北里 왕궁지<그림 12-⑤>⁵³⁾, 鹽倉里 옹관묘⁵⁴⁾, 일본의 岡山 八幡大塚2호분 출토품⁵⁵⁾이 대표적이다. 상하의 연결금 구와 중간의 공구체가 땜으로 연결된 일체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진천 회죽리 태환이식 등 고구려 귀걸이와 구조상 유사한 것이므로 고구려 귀걸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①무령왕비, ②입점리1호분, ③송산리6호분,
④능산리32호분, ⑤관북리

<그림 12> 백제 귀걸이의 세부2(웅진, 사비시기)

백제 귀걸이 가운데 다수는 금사를 이용하여 유환, 중간식, 수하식을 연결한 것이다. 공주 수촌리1호

분⁵⁶⁾이나 원주 법천리1호분 귀걸이⁵⁷⁾처럼 금사를 중간식 속으로 끼워 넣은 다음 아래쪽을 갈고리처럼 휘어 수하식을 매달았고, 위쪽은 유환에 몇 바퀴 감아 고정한 다음 횡으로 1-2바퀴 돌려 감아 마무리한 것이다.<그림 10-④⑤> 이처럼 연결금구의 마감처리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백제 귀걸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아마도 백제 귀걸이의 경우 중간식이 아주 작은 공구체이거나 혹은 유리구슬이기 때문에 그 속으로 연결금구의 끝을 숨길 수 없었던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중간식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데, 이는 금 사슬의 채용이 적은 점과도 관련될 것이다.

무령왕의 귀걸이<그림 11-①>는 연결금구가 특이하다. 연결금구는 금판을 기본으로 만들었다. 주환에 걸려 있는 고리는 유환처럼 보이지만 실제 고리가 아니라 고리 표면을 감싼 장식이다. 연결금구 윗쪽의 너비가 좁아 그것을 크고 넓은 고리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효과를 내는 과정에서 고안된 장식이다. 이 장식 아래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그 구멍을 통해 연결금구인 좁은 금판을 끼워 주환에 1바퀴 감은 다음 다시 빼내어 끝을 중간식 속으로 감추었다. 이러한 연결금구는 백제에서는 무령왕 귀걸이가 유일 하지만 신라의 경우 데이비드총, 천마총, 노서리 138호분에서 확인된다.⁵⁸⁾ 가야의 경우 대가야 전성기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합천 옥전M4호분⁵⁹⁾ 귀걸이에서도 살펴진다. 무령왕 귀걸이에서 보이는 이러한 기법은 백제 귀걸이의 전체 흐름에서 보면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 계보를 신라 귀걸이에서 찾아도 좋을 것 같다. 사비시기 귀걸이의 경우 전술한 것처럼 중간식과 땜으로 접합하여 만든 일체형이다.

백제 귀걸이의 수하식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心葉形<그림 10-⑦⑧⑨>이 많으며, 일부 圓形이나 三翼形이 존재하지만 적은 편이다. 심엽형 수하식은 상하로 길쭉한 것과 좌우가 넓은 것이 있으며 웅진시기 이후에는 복수의 판이 사용되기도 한다. 삼익형은 익산 입점리1호분<그림 12-②>⁶⁰⁾과 무령왕비의 귀걸이<그림 12-①>가 대표적이다. 특히 무령왕비의 귀걸이는 중간에 영락이 달려있고 금 알갱이를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백제의 삼익형 장식은 대가야와

일본열도로 전해졌고 대가야에서는 산치자형 수하식으로 발전한 것 같다.⁶¹⁾

2. 연대의 추정

백제 귀걸이는 한성시기, 웅진시기, 사비시기마다 각기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신라와 같은 계기적인 변화의 양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한성시기에 매우 다양하였던 귀걸이가 웅진시기를 거치고 사비시기에 접어들면서 하나의 유형으로 획일화되는 모습이 살펴지는 정도이다. 귀걸이의 소유층 역시 급격히 줄어든다. 즉, 한성시기에는 비교적 넓은 분포권을 가졌으나 사비시기에는 부여 일원에만 한정되는 양상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백제의 귀걸이 가운데 연대를 고정할 수 있는 것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귀걸이다. 무령왕의 귀걸이는 서기 525년에 묻힌 것이고 왕비의 귀걸이는 529년에 묻힌 것이다. 다만 제작시점과 매납시점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무령왕비의 온제 팔찌에 서기 520년에 제작되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으므로 이를 통해 추정한다면 5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무령왕의 귀걸이에는 수하식을 수리한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사용기간이 보다 길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령왕이 즉위한 서기 501년 이전으로 소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성시기 귀걸이의 대부분은 서기 5세기의 어느 시점으로 편년할 수 있다. 먼저 수촌리 1호분 귀걸이의 연대는 함께 출토된 青磁四耳罐⁶²⁾을 통하여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기는 중국의 4세기 후반대 유적에서 출토된다.⁶³⁾ 따라서 수촌리1호분 귀걸이는 4세기 4/4분기를 소급하기 어려우며, 중국도 자가 백제왕실로 이입되고 다시 수촌리의 무덤 속에 귀걸이와 함께 묻히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5세기 1/4분기 정도로 편년할 수 있을 것 같다. 수촌리4호분과 용원리9호분에서는 중국에서 제작된 黑褐釉鷄首壺가 출토되었다. 그런데 수촌리4호분 출토 계수호는 그릇의 형태로 보아 중국 항주 老和山墓(364년) 출토품⁶⁴⁾보다는 늦고 남경 謢溫墓(406년)의 예⁶⁵⁾보다는 빠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촌리4호분

계수호의 연대를 400년 전후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촌리1호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입에서 매납까지 걸린 기간을 조금 더 보정해준다면 5세기 2/4분기 경으로 편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용원리 9호분 출토 계수호는 수촌리4호분 출토품에 비하여 盤口가 높고 頸部가 직선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脊體의 형태나 頸部의 길이는 유사하다. 이 계수호의 제작연대를 4세기 말로 보는 견해⁶⁶⁾가 있다. 제작연대를 이렇게 파악했을 때 무덤에 매납된 연대는 역시 5세기 1/4분기의 늦은 시점이나 2/4분기 경으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무덤 출토 귀걸이가 무덤에 묻힌 연대 또한 5세기 전반의 늦은 단계 정도로 고정해볼 수 있다.

부여에서 출토되는 귀걸이는 무덤의 구조와 약간의 공반유물로 보면 6세기 후반에서 7세기에 걸치는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교한 능산리 32호분 귀걸이의 경우 6세기 후반 경으로, 염창리옹관묘 출토품처럼 중간식과 수하식이 보다 간략화된 귀걸이는 7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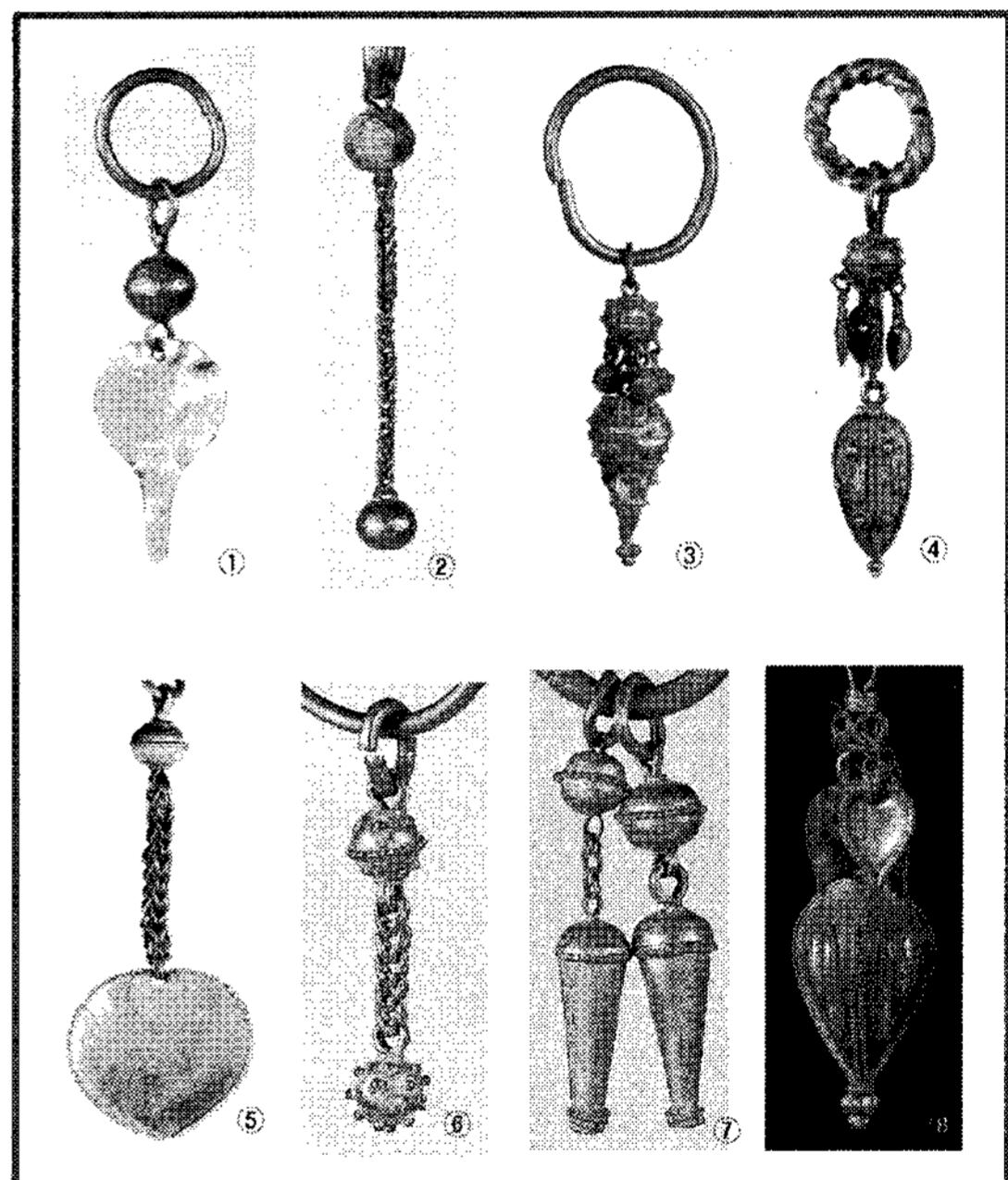
V. 가야의 귀걸이

1. 가야 귀걸이의 특색

가야는 여러 개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소국 사이에 밀접한 정치적 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그러한 관계가 연맹체의 수준이었는지 혹은 국가단계로까지 발전하였는지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다. 가야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귀걸이의 대부분은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 귀걸이다.⁶⁷⁾ 그 외에 함안의 도항리(경남고고학연구소 발굴) 11호 석곽묘⁶⁸⁾나 도항리(창원문화재연구소 발굴) 4-가호묘에서 출토된 귀걸이⁶⁹⁾는 대가야 귀걸이와는 제작 기법이 달라 이를 ‘安羅’적인 귀걸이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아직 자료가 부족하여 상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대가야 귀걸이를 중심으로 그 특색을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대가야 귀걸이의 주환은 모두 세환이며 현재까지 태환이식의 출토예가 없다.〈그림 9-④⑤⑥〉 이 점은

백제의 귀걸이와 공통적이다. 초현기의 가야 귀걸이 가운데는 백제적인 요소가 많이 관찰되므로 태환이식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합천 옥전M4호분이나 M6호분 귀걸이⁷⁰⁾처럼 6세기 전반의 늦은 단계가 되면 주환의 고리가 조금 굵어지고 태환처럼 속을 비게 만든 것이 등장한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의 신라 귀걸이와 공통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유형의 귀걸이가 대가야에서 제작된 것인지 혹은 낙동강 이동의 창녕에서 제작된 것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①옥전20호분, ②옥전23호분, ③지산동44호분1곽,
④중안동, ⑤백천리1호분3곽, ⑥옥전35호분,
⑦옥전M2호분, ⑧계성A지구1호분

〈그림 13〉 대가야 귀걸이의 세부

중간식은 대부분 공구체이다. 반구체 2개를 땜으로 접합하여 구체를 만든 것이다. 옥전20호분 귀걸이〈그림 13-①〉⁷¹⁾처럼 구체의 중간에 각목대가 장식되지 않은 것이 일부 존재하는데 백제 한성시기 귀걸이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여기서 조금 변형된 것이 옥전M2호분 출토품〈그림 13-⑦〉⁷²⁾처럼 각목대가 부착된 것이고, 지산동45호분 1곽 출토품〈그림 13-③〉⁷³⁾처럼 금 알갱이가 붙거나 영락이 매달린 것이

가장 화려하다. 이외에 옥전23호분 귀걸이〈그림 13-②〉는 원판상의 장식을 중간식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원리9호분 출토품〈그림 10-②〉처럼 백제 한성시기의 귀걸이에 유례가 있는 것인 바,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합천 옥전M11호분 귀걸이⁷⁴⁾ 역시 백제 무령왕비의 귀걸이와 제작기법상의 유사도가 높으므로 백제와 관련되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합천 옥전M3, 4, 6호분 귀걸이는 신라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데 M3호분 출토품⁷⁵⁾이 가장 농후하므로 완제품이 이입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수하식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심엽형 장식〈그림 13-①⑤〉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출토예로 보면 금판을 둥글게 말아서 만든 원추형 장식〈그림 13-⑦〉이나 삼익형 장식, 속빈 금 구슬〈그림 13-⑥〉, 산치자 열매 모양의 장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하식이 공존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대가야적인 색채가 짙은 것이 원추형이다. 옥전M2호분 예처럼 위가 넓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며 끝에 각목대를 감아 장식한 것이 있고, 지산동45호분1곽 예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급격히 좁아지며 맨 아래에 금 알갱이를 붙인 것이 있다.〈그림 13-③〉 山梔子 열매 모양의 장식 또한 대가야적인 수하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수하식을 갖춘 귀걸이는 대가야권, 창녕, 일본 열도에서 출토되며 제작지를 대가야권으로 보는 견해⁷⁶⁾와 창녕으로 보는 견해⁷⁷⁾가 있다. 그 계보는 무령왕비 귀걸이 등 백제 삼익형 수하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귀걸이의 각 부품을 연결하는 금구는 금사를 이용한 것이 많으며, 금사를 엮어 만든 사슬이 많이 사용된다. 금 사슬 가운데는 겹사슬〈그림 13-⑤〉도 일부 존재한다. 이처럼 공구체 중간식에 금 사슬을 연결금 구로 활용한 귀걸이는 일본 열도에서도 유행하였다. 다만 열도 출토품은 대가야 귀걸이에 비하여 길이가 매우 긴 것이 특색이다.

2. 연대의 추정

대가야의 귀걸이는 수하식이 다양함에 비하여 중간식은 단순한 편이다. 대가야에서 유행한 공구체 중

간식은 표면장식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옥전20호분 귀걸이처럼 구체의 중간에 각목대가 장식되지 않은 것이고, 옥전M2호분 출토품은 여기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보다 더 늦은 시기의 공구체는 지산동45호분 1곽 출토품처럼 금 알갱이가 불거나 영락이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표면의 장식이 매우 화려해지는 양상이 살펴진다. 이는 같은 시기 신라 귀걸이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대가야 귀걸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합천 옥전23호분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이 귀걸이의 중간식은 원판상 장식인데 천안 용원리 9호석곽묘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용원리 9호석곽묘는 5세기 2/4분기 무렵으로 편년할 수 있는 무덤이므로 옥전23호분 역시 그에서 멀지 않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백제와 교차편년이 가능한 무덤으로는 고령 지산동44호분을 들 수 있다. 이 무덤에서 출토된 銅盞의 형태가 백제 무령왕릉 출토 銅盞⁷⁸⁾과 유사하므로 6세기 1/4분기로 추정할 수 있다. 지산동44호분의 연대를 이렇게 볼 경우 그보다 상대적으로 고식의 유물을 반출하는 옥전M3호분은 5세기 4/4분기, 옥전M2호분은 5세기 3/4분기의 연대를 각각 부여할 수 있다.

고령 지산동45호분은 출토유물의 전체적인 양상으로 보면 지산동44호분보다 늦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으며 절대연대로 보면 6세기 1/4분기보다는 늦은 연대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형 무덤이 다수 발굴된 합천 옥전고분군의 연대를 원용하여 지산동45호분의 연대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대가야는 서기562년에 멸망하였는데, 옥전M11호분은 그 직전에 만들어진 무덤이다. 지산동45호분과 평행기의 무덤인 옥전M4호분은 그 보다 더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이므로 지산동45호분의 연대는 6세기 2/4분기 정도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귀걸이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귀걸이를 감정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착안점을 제시하여 보았다. 귀걸이 전체의 디자인, 그리고 주환·중간식·수하식·연결금구의 형태와 제작기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고대사회의 각국은 매우 특색 있는 귀걸이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수식을 갖춘 귀걸이는 특히 복잡하고 화려하며 고도의 공예기술이 구현되어 있다. 수식을 갖춘 귀걸이는 주환의 굽기에 따라 태환이식과 세환이식으로 구분된다. 고구려와 신라에서는 이 두 종류가 공존하지만, 백제나 가야에서는 세환이식만 제작되었다.

고대사회를 구성하였던 여러 나라는 국왕 등 지배층의 기호에 맞는 독특한 디자인과 제작기법을 구사하면서 화려한 귀걸이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고대사회의 귀걸이에는 각국 문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고구려 귀걸이는 선이 굽으며 강건한 이미지가, 신라 귀걸이는 정교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이, 백제나 가야 귀걸이는 간결하고 세련된 미적 감각이 돋보인다.

고대사회의 귀걸이 가운데 신라의 귀걸이가 가장 화려했고 기술상의 수준 또한 높았던 것 같다. 이러한 신라의 귀걸이는 고구려에서 기원한 것이며 부분적으로 가야나 백제 귀걸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백제 귀걸이의 계보는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아직 뚜렷하지 없지만 서기 5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간소하면서도 세련된 귀걸이를 제작하였음을 밝혀지고 있다. 백제의 귀걸이는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가야의 귀걸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참고문헌

- 1) 고구려 귀걸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
東潮 (1988). 高句麗文物に關する編年學的一考察. 檜原考古學研究所論集, 10.
- 리일남 (1991). 고구려 귀걸이의 형태와 기법. 조선고고연구, 91-3.
- 三木ますみ (1996). 朝鮮半島出土の垂飾付耳飾. 筑波大學先史學·考古學研究, 7.
- 리광희 (2005). 고구려유물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이한상 (2005). 고구려장신구문화의 흐름과 특색.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 吉林省博物館輯安考古隊. 吉林輯安麻線溝1號壁畫墓. 考古1964-10, pp. 520-528.
- 박영복, 김성명 (1990). 중부지역 발견 고구려계 귀걸이. 창산 김정기박사 화갑기념논총, p. 585.
- 추형 수하식은 백제나 가야 귀걸이에는 없다. 신라 귀걸이에서 일부 확인되는데 이는 고구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김재원, 윤무병 (1962). 의성 탑리고분. 국립중앙박물관, p. 38.
- 국립경주박물관 (2001). 특별전 신라황금, p. 118.
- 문화재연구소 (1985). 황남대총북분 발굴조사보고서, pp. 80-90.
- 중원문화재연구원·국립청주박물관 (2007). 중원의 새로운 문화재. p. 61.
- 박영복, 김성명 (1990). 앞의 책, p. 586.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4, p.277.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외 (2002). 洞溝古墓群1997年調查測繪報告. 科學出版社, 도판 22-4.
- 김영관 (2006).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 선사와 고대, 25. 한국고대사학회, pp. 669-670.
- 신라 귀걸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성과가 참고된다. 주경미 (1997). 삼국시대 이식의 연구-경주지역 출토 수하부이식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11, 한국미술사학회.
- 이한상 (1998). 5-6세기 신라 태환이식의 분류와 편년. 고대연구, 6. 고대연구회.
- 권향아 (2002). 삼국시대 신라이식의 제작기법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한상 (2002). 6세기대 신라 태환이식의 제작기법과 편년. 경주문화연구, 5.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태환의 외형이 둥근 고리모양이 되도록 뉘어 놓은 상태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 伊藤秋男 (1974). 武寧王陵發見の金製耳飾について. 백제연구, 5.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권향아 (2002). 삼국시대 신라이식의 제작기법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진옥 (2004). 황남대총 남분 출토 태환이식의 제작 기법과 그 특징.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남대총 북분 출토품처럼 구체 여러 개를 연결한 것도 있지만 예외적인 사례이다.
- 백제의 경우 부여 동남리 출토품으로 전하는 세환이식 1쌍이 있고 고구려의 경우 집안시 출토 세환이식이 알려져 있다.
-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2). 백제조각공예도록, p. 145.
- 李學來 (2002). 積石封土葬王魂. 二十世紀中國百項考古大發現. 中國社會科學出版社, p. 321.
- 이한상 (2008). 5-6세기 일본열도와 한반도의 교류양상. 고고학탐구, 3. 고고학탐구회, p. 69.
-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pp. 96-97.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카드에는 이 귀걸이가 서봉총에

- 서 출토된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2000년 신라황금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이를 근거로 이 귀걸이를 서봉총 출토품으로 도록 소개하였으며 몇몇 논문에서도 서봉총의 일괄유물로 파악하고 논지를 전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이 귀걸이는 서봉총의 주변에서 1929년에 발굴된 데 이비드총 출토품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기회를 빌려 기왕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 穴澤咲光 (2007). 慶州路西洞'ディヴィッド塚'の發掘-梅原考古資料による研究-. 伊藤秋男先生古稀記念考古學論文集, p. 39.
- 22) 국립경주박물관 (2001). 앞의 책, p. 102.
- 23) 이한상 (2001). 무령왕릉 장신구의 국제적 성격. 무령왕릉과 동아세아문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외, p. 160.
- 24) 문화재연구소 (1993).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도판·도면), 도면36·38·39.
- 문화재연구소 (1994). 황남대총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본문), pp. 83-87.
- 25) 국립경주박물관 (2001). 앞의 책, p. 100.
- 26) 이 귀걸이는 한동안 각종 도록 및 논문에 노서리215번지 출토품으로 알려져 왔다. 필자 역시 오류를 범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藤井和夫의 정확한 지적이 있어 바로잡을 수 있었다.
- 有光教一, 藤井和夫 (2000). 朝鮮古蹟研究會遺稿 I -慶州皇吾里第16號墳 慶州路西里215番地古墳發掘調查報告書 1932-1933. 유네스코東아시아문화연구센터 財團法人 東洋文庫, p. 132.
- 27) 辛勇旻 (2000). 昌寧桂城古墳群(上). 湖巖美術館, p. 71.
- 28) 沈奉謹 (1991). 梁山 金鳥塚·夫婦塚. 東亞大學校博物館, p. 38.
- 29) 朝鮮總督府 (1922).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查報告. 大正十三年度古蹟調查報告 第一冊 本文, 제31도-6.
- 국립경주박물관 (2001). 앞의 책, p. 97.
- 30) 朝鮮總督府 (1924). 古蹟調查特別報告第三冊 慶州金冠塚と其遺寶.
- 국립경주박물관 (2001). 앞의 책, p. 107.
- 31) 穴澤咲光・馬目順一 (2007). 慶州瑞鳳塚の調査-梅原考古資料と小泉顯夫の回想にもとづく發掘状況の再現と考察. 石心鄭永和教授停年退任記念 天馬考古學論叢, p. 649.
- 국립경주박물관 (2001). 앞의 책, p. 80의 사진58.
- 32) 경희대학교 소장유물목록 가운데는 창녕 출토로 전하는 金工品이 여러 점 있다. 물론 하나의 가능성 있지만 과거 유물을 귀속하는 과정에서 인왕동고분 출토 귀걸이와 창녕 출토 귀걸이의 출토지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 33) 문화재관리국 (1973). 무령왕릉 발굴조사보고서.
- 34) 최병현 (1988).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p. 377.
- 최종규 (1992). 제라야의 문물교류. 백제연구, 2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 68.
- 35) 이한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p. 102.
- 36) 이한상 (2007). 5-6세기 금속장신구의 연대론. 고고학 탐구, 1. 고고학탐구회, p. 54.
- 37) 이한상 (2000). 백제이식에 대한 기초적 연구. 호서고고학, 3. 호서고고학회, pp. 23-45.
- 이한상 (2007). 앞의 책, pp. 32-35.
- 38)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4-5世紀百濟遺物 特別展 漢城에서 熊津으로, p. 89.
- 39) 이남석 (2000). 천안 용원리고분군. 공주대학교 박물관, p.230.
- 40) 국립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앞의 책, p. 91.
- 41) 이남석 (2000). 앞의 책, p. 454.
- 42) 위의 책, p. 105.
- 43) 박영복·김성명 (1990). 앞의 책, p. 586.
- 44) 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합천옥전고분군VI, pp. 155-157.
- 45) 문화재관리국 (1973). 앞의 책, pp. 28-29.
- 46)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경북대학교박물관 유적발굴 40년, p. 20.
- 47) 장정남 (1995). 경주 황남동 106-3번지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p. 28.
- 48) 이희준, 이재환 외 (2003). 대구 화원 성산리1호분. 경북대학교 박물관, pp.51-53..
- 49) 木村豪章 (1991). 古墳時代の基礎研究稿-資料篇(II)-. 東京國立博物館紀要 26, p. 244.
- 菊水町史編纂委員會 (2007). 菊水町史 江田船山古墳編, pp. 150-151.
- 50) 梅原考古資料 제10267호
이한상 (1997). 공주 송산리분묘군 출토 금속제 장신구. 고고학지, 8. 한국고고미술연구소, pp. 5-7.
- 51) 森下章司, 高橋克壽, 吉井秀夫 (1995). 鴨稻荷山古墳出土遺物の調査. 琵琶湖周邊の6世紀を探る.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
- 5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부여능산리공설운동장 신축예정부지 백제고분1·2차 금속제 장신구. pp. 166-168.
- 53) 국립중앙박물관 (1999). 특별전 백제(도록), p. 157.
- 54) 강인구 (1973). 백제옹관묘의 일형식. 백제문화, 6. 경주대 백제문화연구소, pp. 107-108.
- 55) 鎌木義昌 (1967). 口繪解說 岡山市八幡大塚古墳. 考古學研究, 13-4. 考古學研究會, p. 38.
- 鎌木義昌·龜田修一 (1986). 八幡大塚2號墳. 岡山縣史 18. 岡山縣.
- 56)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앞의 책, p. 88.
- 57) 송의정, 윤형원 (2000). 법천리I. 국립중앙박물관, p. 42.
- 58) 국립경주박물관 (1995). 국립경주박물관(도록), p. 119.
- 59) 조영제 외 (1993). 합천옥전고분군IV. 경상대학교박물관, pp. 40-41.
- 60) 조유전, 윤근일 (1989). 익산 입점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 p. 48.
- 61) 이한상 (2006). 이식으로 본 대가야와 왜의 교류. 석현 정진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부산고고학연구회, pp. 670-671.
- 62) 국립공주박물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06). 앞의 책, p. 75.

63) 林留根. 江蘇鎮江東晉紀年墓清理簡報. 東南文化1989-8,
南京博物院.

이정인 (2000). 중국동진청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南京市博物館. 江蘇南京仙鶴觀東晉墓. 文物2001-3, 文
物出版社.

박순발 (2005). 공주 수촌리고분군 출토 중국자기와
교차연대문제. 충청학과 충청문화, 4. 충청남도역사문
화원

64) 浙江省文物管理委員會. 杭州鎮興寧二年墓發掘簡報. 考
古, 1961-7, pp. 459-460.

65) 華國榮, 張九文. 南京南郊六朝謝溫墓. 文物1998-5, p.
16.

66) 성정용 (2003). 백제와 중국의 무역도자. 백제연구,
38.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pp. 36-37.

67) 가야의 귀걸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石本淳子 (1990). 日韓の垂飾付耳飾についての一考察.
今里幾次先生古稀記念 播磨考古學論叢.

谷畠美帆 (1993). 日本及び朝鮮半島出土の垂飾付耳飾
について. 考古學研究, 40. 考古學研究會.

이경자 (1999). 대가야계고분 출토 이식의 부장양상에
대한 일고찰. 영남고고학, 24. 영남고고학회.

이한상 (2003). 가야의 위세품 생산과 유통. 가야고고
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高田貫太 (2005). 일본열도 5, 6세기 한반도계 유물로
본 한일교섭.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8) 경남고고학연구소 외 (2000). 도항리 · 말산리유적, p.
22.

6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9). 함안 도항리고분군II, p.
44.

70) 조영제 외 (1993). 합천 옥전고분군IV. 경상대학교박
물관, p. 102.

71) 조영제 외 (1998). 합천 옥전고분군VII. 경상대학교박
물관, p. 69.

72) 조영제 외 (1992). 합천 옥전고분군III. 경상대학교박물
관, pp. 153-155.

73) 고령군 (1979). 대가야고분 발굴조사보고서. pp. 217-
218

74) 조영제 외 (1995). 합천 옥전고분군V. 경상대학교박물
관, pp. 30-32.

75) 조영제 외 (1990). 합천 옥전고분군II. 경상대학교박물
관, pp. 96-97.

76) 이한상 (2003). 앞의 책, pp. 683-685.

高田貫太 (2005). 앞의 책, p. 31.

77) 이희준 (2005). 4-5세기 창녕지역 정치체의 읍락구성
과 동향. 영남고고학, 37. 영남고고학회, p. 32.

78) 이한상 (1994). 무령왕릉 출토품 추보(2)-동제용기류
-. 고고학지, 6. 한국고고미술연구소, pp. 85-87.